

企劃論文

한국학 고전 텍스트 정보 편성의 의의와 실제

『정보 퇴계전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석윤

경희대학교 철학과 교수, 조선성리학 전공
symoon@khu.ac.kr

- I. 머리말
- II. 정보의 개념과 범위
- III. 정보 사업의 실제
- IV. 맺음말: 정보 편성의 의의

I. 머리말

최근 국내 학계 내외에서 국학(國學) 기초 사업으로서 한국학 고문헌(古文獻) 자료의 정본(定本) 편성 작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으로 퇴계학연구원(退溪學研究院)에서는 2002년부터 『퇴계집(退溪集)』 정본 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 일차 마무리하였으며¹⁾, 이어서 다산학술문화재단(茶山學術文化財團)에서 다산(茶山)의 전 저작에 대한 정본 편성 작업에 착수하여 현재 완성단계에 있다.²⁾ 또한 우암(尤庵)의 저작에 대한 정본 사업이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충북대(忠北大) 우암연구소(尤庵研究所)에서 일부 진행된 바 있으며³⁾, 한림대부설(翰林大附設) 태동고전연구소(泰東古典研究所)에서는 성호(星湖) 『질서(疾書)』에 대한 정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어서 『성호집(星湖集)』의 정본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연암집(燕巖集)』 등에 대한 정본 편성 사업(단국대)도 계획되고 있다고 하며, 또한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번역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본 공정으로서 번역 대상 문헌의 정본 편성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주요 한국학 고문헌들에 대한 정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본 사업이 국학 연구에서 가장 기초적인 사업이었음에도 그간 학계에서 그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이상하리만치 적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최근의 동향은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현상으로 크게 환영할 만하다. 정본이란 곧 해당 자료에 대한 학술적 검증과 정리를 거쳐 확정된 판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본이 편성된 후에야 비로소 해당 자료에 대한 의미 있는, 즉 신뢰할 만한 연구가 개시될 수 있으며, 번역이든, 주석이든, 사전 편찬이든, 이른바 기초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착오 없이

1) 『定本 退溪全書』(退溪學研究院, 2003-2009) 전15책이 그 성과물로서 보고되었다. 제1책에서 제10책까지가 書簡이며, 제11책이 教·疏·劄等, 제12책이 雜著, 제13책이 序·記·跋等이다. 그리고 제14책과 제15책은 詩이다. 『定本 退溪全書』는 退溪學研究院 홈페이지(<http://www.toegye.org>)에서 온라인상으로 열람할 수 있다.

2) 다산학술문화재단에서는 2004년 9월부터 마찬가지로 한국학중앙연구원 국학진흥사업의 지원을 받아 2012년 2월 연구를 완료하였고, 올 10월 『定本 與猶堂全書』 전체를 출간할 예정이라고 한다.

3)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우암자료집집성및정본화사업팀에서는 그 성과물로서 『定本 朱子語類小分』(一)-(四)(심산, 2010) 4책을 출간하였다.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 사업이야말로 국학 연구에서 기초 사업 중의 기초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정보의 편성은 국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모든 국학 관련 사업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할 우선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생겨나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인 것도 사실이다. 국학 관련 문헌 중에 제대로 된 정보가 희소한 가운데, 이미 번역-영문 번역을 포함하여-을 위시한 국학 기초 부분의 여러 사업이 시행되어왔고 또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작업의 순서를 어긴 것이라 볼 수밖에 없으며, 기초의 부실과 재사업의 우려를 심각하게 제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학계 내외에서 정보 사업 자체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수준이 여전히 그다지 높지 않은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한 가운데 금번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주요 한국학 문헌들에 대한 정보 편성 사업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비록 조금 늦었지만 그만큼 절실하고 반가운, 메마른 땅을 해갈시켜줄 단비와 같이 기쁜 소식이다. 이 글에서는 『정보(定本) 퇴계전서(退溪全書)』의 편성에 일부 참여한 경험을 전달함으로써 그러한 계획이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을 잡고서 힘 있게 추진되는 데 미력이나마 보태고자 한다.

II. 정보의 개념과 범위

1. 집성본(集成本)

『정보 퇴계전서』는 퇴계(退溪)가 정리하거나 저작한 작품 전체를 원래의 온전한 형태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⁴⁾ 또한 각 저작(著作)별로, 의미 있는 이본(異本) 자료들을 모두 모아 목록(目錄, 著作譜標)을

4) 다만 제1차 사업에서는 문집 수록 저작에 범위를 한정하여, 單行된 專著들은 제외되었으며, 비교 대본으로 삼은 것도 초본 6종, 목판본 2종, 필사본 3종으로 중요 異本들을 다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제2차 사업에서 가능한 한 완전히 해소하고자 한다. 다만 문집 수록 범위 외의 單行 專著들은 별도의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들고, 편성에 비교 대본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퇴계의 전 저작을 원형대로 복원한 것이요, 또한 의미 있는 모든 이본 자료를 집성한 집성본(集成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퇴계 자신에 의해서 혹은 목판본 등 문집 편집 시 산절(刪截)되거나 수정(修正)된 부분의 경우, 그를 원형대로 복원하거나 교감주(校勘註) 등에 그 내용을 밝혀두었다. 원형대로 복원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수정과 산절, 그리고 기타 편집 사항 등은 퇴계 저작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해에 대한 이해, 즉 해석사(解釋史) 연구를 위해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각 작품별 자료고(資料考), 편집고(編輯考), 교감주(校勘註) 등에서 밝혀둠으로써 독자들이 그것들을 정보상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정리본(整理本, 校勘標點本)

『정본 퇴계전서』는 각 저작별로 기준본(基準本)을 정하고, 관련 이본 자료들 사이의 전승관계, 곧 계보를 명확히 하며, 의미 있는 이본 자료를 확정하고, 그들 사이의 차이를 교감(校勘)하며, 이체자(異體字) 등 문자상의 차이를 정리하고⁵⁾, 정리된 자료에 일정한 원칙에 따른 표점(標點)을 가하였다.⁶⁾ 가능한 한 기준본의 글자를 고치지 않았으며, 명백히 오류로 보이는 경우에도 교감주에서 ‘금안(今案)’을 달아 그를 밝혀두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3. 연구본(研究本)

『정본 퇴계전서』는 연구자에게 퇴계의 각 저작에 대한 모든 일차

5) 『定本 退溪全書』 제1차 작업분에서는 基準本과 異本상의 異體字, 異形字 등을 正字로 바꾸어 통일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두었다. 향후 이들 문자에 대한 정리는 좀 더 연구가 진행된 가운데 정리 원칙을 확정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6) 『定本 退溪全書』의 표점 원칙은 책의 첫머리에 「定本 『退溪全書』 編纂方法」이란 글에 밝혀져 있다. 또한 제2차 작업을 위해 대폭 보완된 표점 원칙을 마련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봉규, 「定本 『退溪全書』 標點案 研究」, 『退溪學報』 제124집(2008년 12월), 315-335쪽 참조. 그러나 향후 정본으로 편성된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표점 정리 원칙에서 다른 정본 사업과의 통일, 더 나아가 한국고전번역원 등에서의 표점 정리 원칙과의 통일이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계속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를 집성 정리하여 제공할 뿐 아니라, 해당 저작에 대한 교정·교감·고증(考證)·변증(辨證) 자료들을 참고하여 반영하고, 자료의 성격과 역사, 편집(사), 그리고 더 나아가 해석사에 대해서까지도 필요한 주석을 달고, 해당 저작 및 자료들에 대한 고금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는 연구 주석을 덧붙여, 해당 저작에 대한 연구에 참조하도록 하는 연구본, 곧 비판적 정본(critical edition)을 지향하고 있다. 다만 『정본 퇴계전서』 제1차 사업에서는 여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으며, 기본적으로 정리본의 수준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 퇴계학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까지도 제2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제1차 사업에서는 문집 수록 범위 내에서 전 저작의 수록은 실현하였지만, 전 자료를 수록하지는 못했다. 즉, 퇴계의 수고(手稿) 자료와 대방(對方) 문집 수록 자료 등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관련 교감, 고증 관련 자료들도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기본 대조본들 가운데서 일부 빠진 것도 있는데, 그것은 제2차 사업에서 온전히 반영할 예정이다. 그와 관련된 자료들은 충분히 수집, 정리되어 있으므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보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사업 계획이 채택되어 계속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제1차 사업 마지막 해에 제2차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범례를 확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문집 초반 260통의 서간과 잡저(雜著), 시문류(詩文類) 일부분에 대해 연구본에 가까운 수준의 작업을 시행하여 교육부(한국학중앙연구원)에 제출한 바 있다. 그 예시본을 뒤에 〈부록〉으로 붙여놓았다.

III. 정본 사업의 실제

1. 자료 상황

문집 수록 저작의 범위 안에서 퇴계의 저작들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1) 원고(原稿): 퇴계 선생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들

수고류(手稿類)로서 유묵(遺墨) 형태의 초고(草稿), 개고(改稿), 정고(定稿) 등 타 문헌(대방 문집 등) 소재 자료⁷⁾

2) 초본(草本): 문집 간행을 위한 작업본

각가(各家) 소장 자료의 정리 정서(正書)본들⁸⁾

초본(初本, 자료 수합본)(1579년경)⁹⁾

중본(中本, 교정 및 편집본)(1586-1589년)

정본(定本, 판각을 위한 최종 편집본)(1599년)

속집(續集) 초본(草本)

기타 초본류(草本類)들

3) 간본(刊本: 木版本 혹은 活字本 등)

초간본(初刊本): 경자본(庚子本, 1600년), 보각본(補刻本)

중간본(重刊本): 의경자본(擬庚子本, 1650년경), 갑진중간본(甲辰重刊本, 1724년), 계묘교정본(癸卯校正本, 1843년)

속집(續集, 1746년, 李守淵(1693-1748) 編(重刊 사항 없음)

4) 필사본

번남본(樊南本, 1869년)¹⁰⁾

상계본(上溪本), 하계본(下溪本)

-
- 7) 이는 성격상 퇴계가 보낸 편지의 원형을 보존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본다. 초본이나 문집에 최종적으로 수록된 자료와 이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것은 퇴계 자신이 원래 보낸 편지를 나중에 수정한 수정본이라 추정할 수 있다.
- 8) 퇴계 死後, 그의 문집을 간행하기 위해서 퇴계 제자들은 퇴계 스스로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 외에도, 각처에 있는 퇴계의 서간과 시문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였다. 퇴계와 관련 있는 각 인물 혹은 집안에서는 퇴계로부터 받은 편지, 酬酌한 詩文 등을 정리하여 보냈다. 안동 국학진흥원에 수탁된 奉化 琴氏 惺齋 宗宅 所藏 자료 중에 그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발견되었다. 퇴계가 惺齋 琴蘭秀에게 보낸 편지가 연월일순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이어서 퇴계가 성재와 酬酌한 詩文들이 실려 있다. 1책으로 묶여 있으며 앞표지 이면에 '惺齋手筆'이라 기록되어 있다. 각처에서 보내온 이 자료들을 합편하여 淨書한 것이 곧 문집 草本 중 初本인데, 현재 남아 있는 初本에는 성재가 보내온 이 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남아 있지 않다. 初本 제19책에 수록되어 있는 「與琴蘭遠書」 1통은 추후 보완된 것으로 보인다. 성재 종택 자료에는 후에 후손 누군가가 필사한 것으로 보이는 그 편지 1통이 삽지되어 있다. 퇴계 문집의 편간 경위에 대해서는 鄭錫胎, 「『退溪集』의 編刊 經緯와 그 體裁」, 『退溪學論集』 2호(2008년 6월), 1-176쪽 참조.
- 9) 이하 각 草本 자료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는 鄭錫胎, 위의 논문과 鄭錫胎, 「陶山書院 光明室 및 上溪 光明室 所藏資料 撮影 結果 解題」, 『退溪學報』 제114집(2003년 12월), 242-251쪽 참조.
- 10) 이하 세 본은 필사 형태로 남아 있으므로 필사본이라고 통칭되고 있으며, 독자적인 異本 자료로 취급되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한다면 문집 판각을 위한 편집 대본 혹은 정리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교정, 교감 및 고증 자료

귀학정본(龜鶴亭本, 경자본) 상란에 기재된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1563-1633)의 교정 기록

양한당본(養閑堂本, 갑진중간본) 상란 등에 기재된 교정 기록

유도원(柳道源, 1721-1791), 『퇴계선생문집고증(退溪先生文集攷證)』 (1788년)

이야순(李野淳, 1755-1831), 『요존록(要存錄)』

2. 실제 작업의 과정

『정본 퇴계전서』의 편성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작업을 거쳤다. 실제 작업은 이상적인 순서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바람직한 작업의 순서대로 서술해보았다.

1) 해당 자료의 수집, 전수(全數) 조사, 목록 작업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그 전체 현황을 실지(實地) 조사, 해석, 분류하여 목록화한다. 전국 주요 도서관 및 소장처에 대한 실지 조사를 하되 가급적 전수(全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요 자료에 대해서는 디지털 촬영 혹은 복사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으며, 미발굴 수고 자료 등을 포함해서 조사 및 수집 작업 또한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정본 퇴계전서』의 경우, 사업 시행 초기에 관련 기본 자료 전체에 대한 고해상도 디지털 촬영 작업을 시행하였으며¹¹⁾, 뒤에 자료가 나오는 대로 계속 추가로 촬영을 해서 확보해둔 상태이다. 또한 사업 도중인 2006년, 필자를 연구책임자로 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1년 과제)을 받아 전국 주요 도서관에 소장 중인 퇴계 문집(『퇴계집(退溪集)』)과 저작 관련 자료(『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송계원명리학통록(宋季元明理學通錄)』 등 5종)들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모든 자료를 인출하여 실측하고 확인하였으며, 판본 사항을 판정하고, 각 자료별 특기 사항을 기록해두었다. 문집의 경우 24개의 국공립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을 조사했으며, 저작의 경우 5개 도서관을 조사하여 그

11) 이에 대해서는 鄭錫胎, 「陶山書院 光明室 및 上溪 光明室 所藏資料 撮影 結果 解題」, 『退溪學報』 제114집(2003년 12월), 233-272쪽 참조.

결과물로 『전국 주요 도서관 소장 목판본(全國 主要 圖書館 所藏 木版本)』 『퇴계집(退溪集)』 목록(目錄)과 해제(解題)』(270쪽 내외), 『전국 주요 도서관 소장 퇴계선생 주요저작 목록과 해제(全國 主要 圖書館 所藏 退溪先生 主要著作 目錄과 解題)』(160쪽 내외) 라는 제목의 2책을 보고서로 제출한 바 있다.¹²⁾

2) 저작보표 작성 및 문헌고 구축

저작보표(著作普表)란 각 저작별로 의미 있는 이본 자료 전체를 통괄하여 표로 만든 것을 가리킨다.¹³⁾ 즉, 해당 저자가 남긴 모든 저작 각각의 자료들, 곧 이본들의 현황을 저작별로 분류하여 통합 정리한 것이다. 각 저작별로 유목 혹은 수고의 존재 여부, 각 초본(草本)과 판본(版本)에의 등재 여부, 타인 문집이나 기타 선집(選集) 혹은 편집본(編輯本) 등에의 등재 여부 등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존하는 해당 자료가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될 수 있다. 또한 이 저작보표에 따라 각 저작별로 원문 이미지 및 복사 자료를 통합 분류 정리함으로써 문헌고(文獻庫, 문서복사 혹은 디지털사진 형식)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교감 작업 및 교감된 자료의 교열 확인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퇴계학연구원에서는 자체 재원으로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퇴계 저작 전체에 대한 저작보표를 작성하였으며, 전자문헌고를 구축해 놓은 상태이다.¹⁴⁾ 『정본 퇴계전서』의 저작보표는 표1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3) 정본 범례(凡例)의 확정 및 교감과 정리의 시행

자료에 대한 일차 조사와 수집이 끝나면 정본 편성의 범례를 확정하여야 한다. 범례에는 기준본(基準本)과 대조(對照) 대본(臺本)의 확정, 교감기(校勘記)의 작성 원칙, 표점 원칙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범례가 확정되

12) 이들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http://www.krm.or.kr/>)에 연구성과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온라인상에서 검색할 수 있다.

13) 마치 族譜가 그러한 것처럼 저작별 계보, 곧 異本 자료들 사이의 전승관계를 일목요연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해서 著作譜라는 개념을 쓰고, 그를 표의 형태로 제시했다고 해서 著作譜表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14) 저작보표 작성과 전자문헌고 구축 관련 범례에 대해서는 함영대, 「정본 『퇴계전서』 저작보표 · 전자문헌고에 대하여」, 『退溪學報』 제124집(2008년 12월), 336-344쪽 참조.

표1-퇴계 저작표 예시

고유 번호	제1차 사업본	草本					板本	草本	板本	寫本	寫本	寫本	手稿
	定本	初草	中草	定草	文集 草本	文集 拾遺	校正	續集 草本	續集	樊南	上溪	家書	手稿 對方文集
KNL0001	書- 李賢輔 -1	×	19- 1	09- 1	×	×	09- 1	×	×	09- 1	09- 1	×	
BNL0002	書- 李賢輔 -2	14- 133	19- 2	×	×	05- 1	×	×	×	09- 2	09- 2	×	
KNL0003	書- 沈通源 -1	×	41- 55	09- 2	×	×	09- 2	×	×	09- 3	09- 3	×	謹齋集 권4:7a 與沈方伯 通源書
KNL0004	書- 李浚慶 -1	×	22- 52	09- 3	×	×	×	09- 3	×	09- 4	09- 4	×	『東阜遺稿』 『附錄』 50a-52a 「退溪先生 答公書 (己未)」
SNL0005	書- 李浚慶 -2	×	22- 53	×	03- 1	×	×	×	03- 1	속3- 1	속3- 1	×	

* 고유번호는 편집 정보와 문체 정보를 포함한 전체 일련번호이다. 'KNL0001'은 '수록 순서로 볼 때 서간문 첫 번째 자료로서, 목판본(계묘교정본) 內集에 실려 있다'라는 의미이다. 'SNL0031'은 '31번째 시간으로, 續集 편찬 시 비로소 실리게 된 자료'라는 의미이다. 'BNL0031A'는 '31번째 시간의 別紙로서, 樊南本 편성 시 비로소 실리게 된 자료'라는 의미이다.

* 판본 아래의 숫자는 각 판본별 卷次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09-1'은 '권9의 첫 번째 작품(편지)'을 의미한다. 卷次의 구분이 없는 자료의 경우는 '책 수'를 표기한다.

* '정본'이란 퇴계학연구원에서 작업한 『定本 退溪全書』(제1차 사업본)를 의미한다. 그에 해당하는 자료번호는 '정본'에 기재되어 있는 일련번호로서, '書-李賢輔-1'은 '이현보에게 보낸 편지 첫 번째'를 의미한다.

* 판본에는 교정본과 속집 이외에도 경자본, 의경자본, 중간본이 있으나 편차는 교정본과 동일하므로 총목록에서는 교정본으로 대푯값을 삼는다. 다만 구체적 교정 검토에 활용되는 전자문헌고에서는 이들 판본 역시 독립된 판본으로 설정하여 수록한다.

* 전자문헌고는 각 고유번호를 상위 폴더로 하고 각 상위 폴더의 하위 폴더로 해당 판본들을 배당하여 각 하위 폴더 안에 해당 이미지 자료를 배치하는 방식 등으로 구축한다.

면 그에 따라 작업을 시행하며, 작업과정 중에 작업의 실제적 필요에 따라 범례는 지속적으로 수정될 수 있다. 『정본 퇴계전서』의 경우는 계묘교정본, 속집 간본, 번남본 순으로 기준본을 삼았으며, 초본류·판본류·필사본류를 망라하여 대조 대본으로 삼았다. 기타 『정본 퇴계전서』

의 자세한 범례는 책의 앞에 수록해두었다. 또한 제2차 작업을 위해 범례를 대폭 보완하여 『퇴계학보(退溪學報)』 제124집(2008년 12월)에 연구보고서로 게재하였으며¹⁵⁾,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수정 보완된 범례에 따라 서간과 잡저, 시문류 일부분에 대해 예시본(例示本) 2책(각 책 570쪽 내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검수(檢修) 및 교열(校閱)의 시행

일차 완성된 작업본은 반드시 철저한 검수 및 교열의 과정을 거쳐 오류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본 퇴계전서』 제2차 사업은 제1차 사업에 대한 검수와 교열을 수행하는 가운데 진행하고자 하며, 제2차 사업의 결과물에 대해서도 별도의 검수 및 교열 과정을 거치도록 할 것이다.

5) 기타 수행되어야 할, 혹은 수행될 수 있는 작업

정본 작업은 자료에 대한 연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즉, 대본들의 자료적 성격에 대해서 별도의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연구결과는 별도의 논문으로 발표될 수 있으며, 정본 앞부분에 범례 혹은 부록으로 수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원고류를 필두로 초본류·간본류·필사본류 각각의 성립 경위, 현황과 성격, 상호관계 등등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교감 작업에 앞서 사전 조사 작업과정에서 완료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병행할 수도 있으며, 또한 정본을 편성한 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작업이다.

연구 주석 내용의 많은 부분은 정본에 기록할 필요 없이, 사전 편찬(예: 『퇴계집 사전(退溪集 辭典)』)을 통해 일괄 수렴 정리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자료에 나타나는 인명·지명·서명·관직명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난해 어휘, 개념 등에 대해서 해설을 단 사전이 편찬된다면 연구자들이 정본을 이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추후 번역 등의 작업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15) 정석태, 「定本 『退溪全書』 凡例案-詩 자료를 중심으로」, 『退溪學報』 제124집(2008년 12월), 299-314쪽; 문석윤, 「定本 『退溪全書』 凡例案-書簡 및 散文 자료를 중심으로」, 『退溪學報』 제124집(2008년 12월), 271-298쪽 참조. 표점에 대해서는 이봉규, 앞의 논문 참조. 각 자료의 성격을 반영하여 書簡 및 散文, 詩의 범례를 따로 마련하였으며, 표점 범례도 대폭 보완하였다. 그러나 이들 범례는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며 작업이 진행되면서 계속 보완해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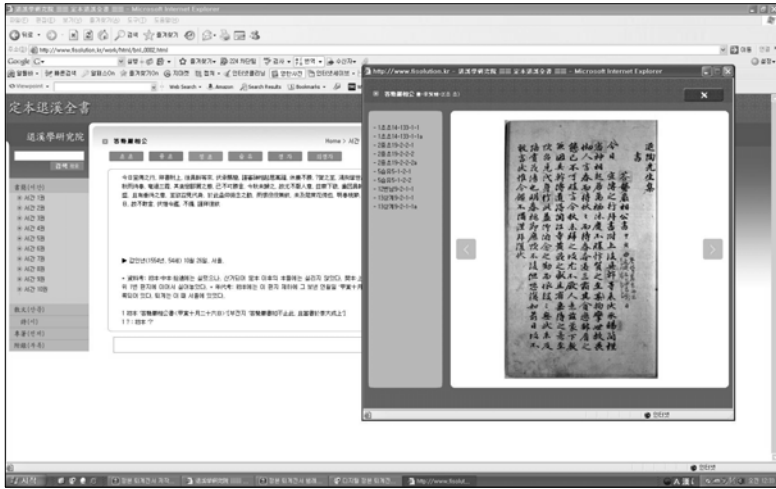


그림1- 퇴계 디지털 문헌고 예시

또한 이러한 정본 편성의 전 과정에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교육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도록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하겠다. 그것은 곧 그간의 학계의 연구 풍토를 개선하고 국학 연구가 좀 더 엄밀하고 높은 수준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¹⁶⁾

정본을 포함해 모든 관련 자료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웹상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일반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전자문헌고는 이 디지털 문헌고를 구축하는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다. 제1차 사업 마지막 해에 퇴계학연구원에서는 제2차 사업을 염두에 두고, '퇴계 디지털 문헌고(가칭)'를 구축하기 위해 외부전문 업체에 디자인을 의뢰하여 시제품을 만든 바 있다. 그 예시화면은 그림1과 같다.

16) 정본 편성의 중요성에 동의한다고 해도 많은 이들이 정본 편성을 담당할 전문 인력의 부족에 대해 염려한다. 그러나 현재 각 대학의 한문학과와 고전번역원의 한문연수과정 그리고 최근 일부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아 몇몇 대학에 설치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고전번역학 협동과정의 경우, 커리큘럼에서 문헌학·서지학·문자학·고문헌 정리학 등의 과목을 설치하여 교육한다면 충분히 훌륭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또한 그 외에 철학·문학·사학 등 제반 전문 학문영역의 연구 인력들 또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기본 원전에 대한 정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금은 사업을 감당할 인력이 부족함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통해 인력을 길러갈 수 있다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IV. 맺음말: 정보 편성의 의의

사실 정보 작업에 종사하는 것은 차후의 다른 연구자들이 그것을 토대로 빛난 연구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충실하게 심부름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노고를 대신하여 덜어준다는 섬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매우 단순하고 단조로운 작업이며, 작업결과 역시 들이는 공에 비해 크게 빛나 보이지 않고, 인정받기도 어렵다. 그러나 그것은 누군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그것이 곧 모든 연구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요, 기초를 튼튼히 하면 튼튼히 할수록 이후에 쌓아올릴 수 있는 건축물 또한 크고 견고할 수 있고, 뿌리를 튼튼히 하면 할수록 더욱 좋은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 작업은 문헌을 기초적으로 정리하는 것인 동시에, 서지학(書誌學)·문헌학(文獻學)·목록학(目錄學)·문자학(文字學) 등 문헌 유산에 대한 전통적 연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공간 혹은 장소로서, 작업이 진행되면서 국학 관련 기초 지식은 크게 확장되고 체계화될 것이다. 더 나아가 정보는 해당 문헌에 대한 모든 학술적 연구를 총괄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 작업은 단지 문헌의 일차적이고 초보적인 정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문헌 연구의 열매요 정화(精華)로서의 의미 또한 지니고 있으며, 정보 편성의 수준은 곧 당대 학술의 수준을 반영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정보 사업은 그 의의가 심대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시급히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그간 고문서(古文書) 정리 작업의 중심 기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한 것과 같이, 정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국학 관련 고문헌에 대한 정리 작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보화가 필요한 기본 문헌들을 선정하고, 각 자료별 특성에 따라 기본적인 범례안을 마련하고, 작업과정을 표준화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정보 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보 사업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차후 우리 국학의 학술 수준을 더욱 높고 튼튼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국고 문헌들을 투박한 원석상태가 아닌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가공하여 세계인들에게 제시함으

로써,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헌 유산들을 세계인들에게 떳떳하게 제시한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해외 학자들의 관심과 의미 있는 연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의 문화적 긍지와 자부심 또한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 사업에 대한 학계와 정부, 기업 등 뜻 있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과 지지를 감히 촉구한다.

KNL0001 書-李賢輔-1

答龔巖李相國〈賢輔○己酉〉¹⁾

伏蒙令慈賜書誨諭兼示辭狀草及「漁父辭」等，仍審台候萬福，不勝感欣瞻賀之至。伏見辭狀草，辭簡而義明，禮恭而情懇，上以盡忠愛之誠，下以遂退閒²⁾之願，雖有遲延³⁾之恨，不爲病也⁴⁾，而眞足以使人仰德而起敬，聞風而激懦，以此報國酬恩亦已⁵⁾多矣，何必不度禮義，聞命奔走而後，可以盡事君之道乎？混近日形迹果爲不留之計，惟⁶⁾不得擅離，故淹留過⁷⁾日，以待監司之所處。茲承指迷之勤，惕然有改圖易慮之意，然一去一留，跋前疐後，莫適所從，不知如何而可也。衙中無人，雖似寂寥，然適爾如此，混之去住實不係於此事也。且此邑非

* 己酉年(1549년, 49세) 8월 초순, 豊基.

李賢輔(字 秉仲, 號 龔巖·雪鬢翁, 諡號 孝節, 本 永川. 1467-1555).

* 資料考: 中本 상란에 李本이라 표기된 本과의 對校 기록이 다수 있다. 李本이란 현재는 유실된 원래의 初本 중 『千字文』의 글자로 '李' 자에 해당되는 책을 가리키는 듯하다. 그 對校 내용을 살펴볼 때, 李本은 定本 이하 板本에 실려 있는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고, 中本에 실려 있는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곧, 李本에 실려 있던 것을 가지고 中本에 실려 있는 것의 본문 자구를 수정하여 定本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中本에 실려 있는 편지는 退溪가 보낸 원래의 편지를 대본으로 한 것이며, 李本에 실려 있던 것은 退溪가 추후에 수정한 원고를 대본으로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龔巖集』에는 龔巖 李賢輔가 癸卯年(1543년)부터 甲寅年(1554년)까지 12년 동안 退溪에게 보낸 편지가 原集(권2: 1a-9a)에 11통, 續集(권1: 5b-7b)에 5통, 총 16통이 실려 있다. 하지만 이 편지 및 아래 2번 편지 「答龔巖相公」과 與答관계에 있는 편지는 1통도 없다.

* 年代考: 편지 내용에 “又家兄來月旬間, 自湖西來省丘壘, 已請于朝, 而書告于混矣. 相望數旬間……”라고 한 것에 의거해볼 때 이 편지는 退溪의 넷째 형 李滄(字 景明, 號 溫溪, 諡號 貞敏, 本 眞寶, 1496-1550)가 휴가를 받고 고향에 내려온 己酉年(1549년) 9월을 기준으로 수십일 전인 己酉年(1549년) 8월 초순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退溪는 이때 豊基郡守로 재직하고 있었다.

- 1) 中本 ‘答龔巖李相國〈賢輔〉[부전지 ‘○己酉]’; 擬本 ‘答龔巖李相國〈己酉〉’.
- 2) 閒: 中本·定本 ‘閑’.
- 3) 延: 中本 ‘鈍’[부전지 ‘鈍’, 李本作‘延’字][교정기 ‘延’]; 樊本 ‘鈍’[두주 ‘鈍’, 印本作‘延’], 上本 ‘鈍’[두주 ‘鈍’, 印作‘延’].
- 4) 也: 中本 없음[부전지 李本病‘下有’也’字].
- 5) 已: 中本 ‘足’[부전지 ‘足’, 李本作‘已’]; 樊本 ‘足’[부전지 ‘足’, 印本作‘已’], 上本 ‘足’[부전지 ‘足’, 印作‘已’].
- 6) 惟: 中本[부전지 ‘惟’字, 李本‘無’]; 樊本[두주 ‘惟’, 一本作‘無’], 上本[두주 ‘惟’, 一作‘無’].
 今按: 中本에는 단순히 이 글자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樊本과 上本の 두주에서 ‘作’자를 잘못 넣은 것으로 보인다.
- 7) 過: 中本[부전지 ‘過’, 李本作‘送’]; 樊本·上本[두주 ‘過’, 一作‘送’].

大路傍輪蹄輻輳之比，詞訟又不至煩劇，雖謂養病之地，可矣。⁸⁾但以滉羸瘁之疾日益歲增，豈惟自悶，人亦知滉不敢⁹⁾從吏役也。氣且枯損，精神昏憤，臨事茫然，昨之所爲今日已忘，朝之所令夕已不省，本領既如此，政之日紊，何足恠也？朝旨惻怛視民如傷，而恩不能下究，閭閻愁痛轉徙流亡，而冤不得上通，皆守令不職之罪。¹⁰⁾號令不行，催科不及，簿書多闕，謫責沓至，上不能事乎上，下不能使¹¹⁾乎下，中不能護¹²⁾其身，傍不能濟親舊之急¹³⁾，猶冒居其位，貪食其祿，此滉¹⁴⁾所以不能一日¹⁵⁾安於心，而欲去之速也。豈有矯激希慕，而欲爲不近情之舉乎？至於書末云云之戒，尤有¹⁶⁾以見垂憐之厚，欲令愚拙微蹤獲保其終之盛意也。滉雖謬計，亦嘗慮及於此矣。然於朝則動輒辭病，於外則忍病久處，竊恐緣此而反招人¹⁷⁾之疑怒也。故爲滉之計，不問在朝在外¹⁸⁾在家之日，苟遇病深則可辭，病稍¹⁹⁾歇則可仕。²⁰⁾若是，庶幾已直而人釋然矣。如何如何？蓋滉之仕否，非敢論禮之如何事之如何，視身病輕重爲去就，故其迹²¹⁾或似固²²⁾執，或似無端，或謂之矯激，或謂之濡滯也。一病爲一生之患，人非不知，而不免於疑謗，滉之處身，其亦難矣。近日賤累之遣固爲無端，其實病深不得已爲歸計也。監司在遠，待報遲回之際，公私事故互相掣肘，邑中之人君子論說紛紜²³⁾，以義

-
- 8) 矣: 中本 '也'[부전지 '也', 李本作'矣']; 樊本 '也'[두주 '也', 印本作'矣'], 上本 '也'[두주 '也', 印作'矣'].
- 9) 敢: 鄭校 '敢'恐'堪'字. 今案: '堪'으로 보는 것이 文理상 더 타당해 보이지만 臺本들에 모두 '堪'으로 되어 있으므로 고치지 않았다.
- 10) 罪: [두주 '罪'下一本有'也'字]. 中本[부전지 '罪'下, 李本有'也'字]; 庚本·擬本[두주 없음] 甲本[두주 '罪'下一本有'也'字].
- 11) 使: 中本[부전지 '使', 李本作'吏'].
- 12) 護: 中本 '讓'[부전지 '讓', 李本作'護']¹¹⁾부전지 '讓'可疑, 當作'護'; 樊本·上本[두주 '護', 本草作'讓'] 今按: 本草는 곧 中本을 가리키는 것으로 짐작된다.
- 13) 急: [두주 '急'下, 一本有'而'字]. 中本[부전지 '急'下, 有'而']; 庚本·擬本[두주 없음], 甲本[두주 '急'下, 一本有'而'字]; 樊本·上本[두주 '急'下, 一本有'而'字].
- 14) 滉: 中本 '某'[부전지 '此某'之'某'字, 李本作'滉'].
- 15) 一日: 中本 없음, 定本 없음[교정기 '一日']; 樊本 없음[두주 '能'字下印本有'一日'二字], 上本 없음[두주 '能'下印有'一日'二字].
- 16) 有: 中本 '足'[부전지 '足', 李本作'有'], 定本 '足'[교정기 '有']; 樊本·上本 '足'[두주 '足', 印本作'有'].
- 17) 人: 中本 '人人'[부전지 李本無一'人'字], 定本 '人人'[한 글자 말거표시]; 樊本·上本 '人人'[두주 印本無一'人'字].
- 18) 與: 中本 없음[부전지 李本'在外'下有'與'字].
- 19) 稍: 中本 없음[부전지 '病'字下有'稍'字].
- 20) 仕: 中本 '任'].
- 21) 迹: 庚本 '跡'].
- 22) 固: 中本 '苦'[교정기 '固'].
- 23) 紛紜: 中本 '紛紛'[부전지 '紛紛', 一作'紛紜'], 定本 '紛紛'[교정기 '紛紜']; 樊本 '紛紛'[두주 '紛紛', 印本作'紛紜'], 上本 '紛紛'[두주 '紛紛', 印作'紛紜'].

見責爲不當去，小民咸咨怨，以爲不恤我穡事，不念我輸債，敦我以迎送之弊，滉固已不快於心矣。又家兄來月旬間，自湖西來省丘壠，已請于朝，而書告于²⁴⁾滉矣。相望數旬，而²⁵⁾滉先去郡，亦有未安之私，正如去年丹山之事。不意猥蒙大人之記念，辱加諄諄又如此，滉雖固陋，寧不感動周旋，思所以承教意乎？呈辭回音朝夕且至，得請則當去，不得請則欲觀病勢而處之，若此則將²⁶⁾至於濡滯，而衝風烈寒，過冬之難又可虞也。此所謂‘跋前疐後，不知如何而可’者然²⁷⁾也。「漁父辭」，去春與任城主所議者誠不穩愜，誠爲叨僭。其後自龍壽寺寄柬一本，謹以²⁸⁾承見，但以前日妄改爲悔，故不敢輒有回稟。今來所定章次及短歌新作一閱，皆勝於前日之²⁹⁾所示，可歌而可傳者也。因此又知江湖之景·風月之清·漁釣之樂，天所以餉高退之境，自世俗規規者觀之，不啻黃鵠之與壤蟲，固不得窺其涯際也。跋語，何敢輕易爲之？惟當楷寫以上。尙有欲稟之條，俟後日³⁰⁾面承提警而後爲之也。山紅水綠，正好陪賞之時，又有令孫氏之招，敢不趨拜？得請則固可及矣，不得請而濡滯，則當待兄來而偕進，其前恐未暇又作往來也。俟罪俟罪。惶恐不宣。謹上先生台座下。³¹⁾

24) 告于: [두주 '告于'之'于', 一本作'於']. 中本[부전지 '于', 一作'於']; 庚本·擬本 [두주 없음, 甲本 [두주 '告于'之'于', 一本作'於']].

25) 而: 中本 없음[부전지 李本'旬'字下, 有'而'字], 定本 없음[교정기 '而']; 樊本 없음[두주 '旬'字下印本有'而'字], 上本 없음.

26) 將: 中本 '將不'[부전지 李本'將'下無'不'字], 定本 '將不'; 樊本·上本 '將不'[두주 '將'字下印本無'不'字].

27) 然: 中本 없음[부전지 李本'可者'下有'然'字], 定本 없음[교정기 '然']; 樊本·上本 없음[두주 '者'字下印本有'然'字].

28) 以: 鄭校 '以'恐'已'字.

29) 之: 中本 없음[부전지 李本'前日'下有'之'字], 定本 없음[교정기 '之']; 樊本·上本 없음[두주 '一'字下印本有'之'字].

30) 日: 中本 없음[부전지 一本'後'下, 有'日'字], 定本 없음[교정기 '日']; 樊本 없음[두주 '後'下印本有'日'字], 上本 없음.

31) 謹上 …… 座下: 中本·樊本에 의거하여 보충함. 上本 없음[부전지 '謹上先生台座下'].

참 고 문 헌

- 문석윤, 「퇴계학(退溪學) 연구의 현황과 전망-『퇴계집』(退溪集) ‘비판적 정본’(批判的定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人文科學研究論叢』 제22호, 2000, 169-179쪽.
- _____, 「定本『退溪全書』凡例案 - 書簡 및 散文 자료를 중심으로」, 『退溪學報』 제124집, 2008년 12월, 271-298쪽.
- 文錫胤 外 編, 『全國 主要 圖書館 所藏 木版本 『退溪集』 目錄과 解題』, 한국학술진흥재단, 2007.
- _____, 『全國 主要 圖書館 所藏 退溪先生 主要著作 目錄과 解題』, 한국학술진흥재단, 2007.
- 이봉규, 「定本『退溪全書』標點案 研究」, 『退溪學報』 제124집, 2008년 12월, 315-335쪽.
- 鄭錫胎, 「陶山書院 光明室 및 上溪 光明室 所藏資料 撮影 結果 解題」, 『退溪學報』 제114집, 2003년 12월, 233-272쪽.
- _____, 「『退溪集』의 編刊 經緯와 그 體裁」, 『退溪學論集』 2호, 2008년 6월, 1-176쪽.
- _____, 「定本『退溪全書』凡例案 - 詩 자료를 중심으로」, 『退溪學報』 제124집, 2008년 12월, 299-314쪽.
-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우암자료집성및정본화사업팀, 『定本 朱子語類小分』 (一)-(四). 심산, 2010.
- 退溪學研究院, 『定本 退溪全書』 전15책. 退溪學研究院, 2003-2009(미출간 보고본).
- _____, 『定本 退溪全書』 1-2. 退溪學研究院, 2009(미출간 보고본).
- 함영대, 「정본『퇴계전서』 저작보표·전자문헌고에 대하여」, 『退溪學報』 제124집, 2008년 12월, 336-344쪽.

국 문 요 약

정본(定本)이란 곧 해당 자료에 대한, 학술적 검증과 정리를 거친 확정된 판본을 의미한다. 정본이 편성된 후에야 비로소 해당 자료에 대한 의미 있는, 즉 신뢰할 만한 연구가 개시될 수 있으며, 번역이든, 주석이든, 사전 편찬이든, 이른바 기초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본 편성 사업이야말로 기초 사업 중의 기초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즉, 한국학 고문헌들의 정본 편성 사업은 국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모든 한국학 관련 사업에 앞서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할 우선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정본(定本) 퇴계전서(退溪全書)』의 편성에 일부 참여한 경험을 전달함으로써 여타 정본 사업들이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을 잡고서 힘 있게 추진되는 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

투고일 2012. 6. 2.

수정일 2012. 8. 22.

게재 확정일 2012. 8. 23.

주제어(keyword) 한국학(Korean Studies), 고문헌(traditional classical texts), 정본(定本, critical edition), 정본 사업(the project of making the critical editions), 『정본(定本) 퇴계전서(退溪全書)』(*The critical edition of the collected works of Toegy*)